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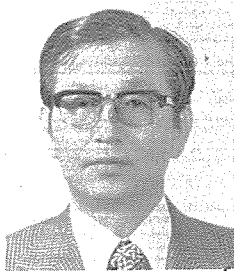
현대의 인간문화는 科学을 창조하고 技術을 혁신하여 經濟를 성장시켜 福祉를 향상하므로서 영위되고 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현대의 인간은 數世紀 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高度福祉社會 속에서 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복지라는 이름의 행복의 뒷면에는 인간소외라는 불행이 도사리고 있다. 이 그림자는 합리와 실증을 주제로 하는 과학과 기술이 창출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최대행복이라는 발전公式에서 초래된 필연적인 산물이라 하겠다. 공해를 외면한 일방통행이 갖어다준 不請客이기도 하다.

인간疎外를 소리높여 외치며 “存在는 本質에 優先한다”고 주장하는 실존철학자까지도 젓트기를 타고 자기주장을 전파시킬 강연장에 나가고, 그 발언은 電波媒体라는 현대과학기술의 精粹를 통해서 온 세계에 과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부정하므로서 인간실존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작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과학과 인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인간이나 하는 양자택일식의 黑白논리로 문제를 유도해 가는 경향이 짙다. 이같은 경향은 과학이 인간에다 안겨다준 實利보다는 그 災患에다 역점을 편중시키기 때문이다. 科学의 효용성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반면, 과학의 파괴성을 지혜롭게 制禦해 나가는 것이 현대인간 實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地球人에게 부과된 정치 문제일 것이다.

다가올지도 모르는 核戰爭에 대한 恐怖, 사랑없이 탄생하는 실험실아기의 非倫理性, 資源戰爭의 불씨가 되어 있는 化石에너지와 魚油資源의 고갈, 인구폭발과 식량문제 및 환경공해가

科学과 인간



근병규

(理博·韓國 科学院教授)

갖어다 주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등은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들인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 예이다.

이와같은 부정적인 면을 슬기롭게 극소화시키므로서, 비로소 우리 인간은 지구인으로서 生存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제 인간은 자기가 소속하는 社會階層이나 집단, 나아가 조국의 차원 뿐만 아니라 地球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구차원의 인간의식 제고가 先決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제기를 국가간의 이해대립이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빈부에 있어서의 남북문제와 정치이념에 있어서의 동서문제가 문제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이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문제들이므로 도리가 없다. 이제 우리 인간은 지구인으로서의 자각과 지구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인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地球도 하나,
祖國도 하나,
“나”도 하나,

라는 인간의식이 지구차원에서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事理에 맞고, 실리가 있고, 의리가 깃드는 일을 우선하기로 힘을 모으면, 인간의 앞날은 보다 밝아질 것이고, 인간은 도구화됨이 없이 그 실존은 본질화 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에 공연한 생각을 했었다.)